

드론이 축구공 되고, 축구공이 하늘 난다

드론축구 발상지인 전주에서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월드컵이 열린다.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전주의 문화, 예술, 산업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보 8월 28일자 1면〉

지난 2016년 탄소소재와 드론, 스포츠의 결합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전주에서 개발된 드론축구는 독창적인 경기방식과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30여 개국에 활발히 보급되고 있으며 글로벌 K-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편집자 주

▲드론이 축구공이 되고, 축구공이 하늘을 난다

최근 첨단산업인 드론의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다. 과거 배달 등 운송수단과 항공방재, 화재 진압 등의 용도로 주목받아 왔던 드론은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신무기가 됐다. 또,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서는 수많은 드론이 함께 날아오르는 드론쇼가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전주시도 꼬박 10년 전부터 전주만의 강점인 탄소소재와 드론, 첨단ICT 산업을 결합한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드론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드론축구는 '드론이 축구공이 되고, 축구공이 하늘을 난다'는 획기적인 발상에서 시작됐다. 드론이 축구공도 되고, 공격수와 수비수도 된다. 드론을 조작하는 선수들도 다른 종목과는 달리 신체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남녀노소 누구나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10년간의 노력은 드론축구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첨단 레저스포츠로 만들었다.

특히 영국이 축구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것처럼 전주시는 드론축구 개발뿐 아니라 경기방식과 드론축구공 개발·보급, 국제연맹 창설 및 리그 운영 등에 앞장선 데 이어,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월드컵까지 개최하며 명실상부한 드론축구 종주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시는 드론축구의 개발과 보급,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다방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 쌓아온 성과를 국제무대에 각인시키고 드론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전주가 시작한 드론축구, 세계로 '활활'!

2016년 전주에서 개발된 드론축구는 먼저 대한민국 전역으로 뻗어나갔다. 전주시 드론축구팀이 창단된 이후 전국에서 드론축구팀이 하나둘씩 생겼고, 지난 2017년 6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로보유니버시티K드론' 행사장에서는 첫 번째 공식 드론축구 전국대회인 '제1회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첫 번째 드론축구 전국대회가 열린 지 8년여 만에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에서 이제의 전 세계 32개국 2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드론축구 분야로는 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제대항전이 열린다. 구체적으로 이번 월드컵에는 국제드론축구연맹(FIFA)의 22개 회원국과 10개 MOU 체결 국가가 참여해 32개 국가의 대표들이 자국의 명예를 놓고 격돌하게 된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는 대한민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14개국과 미국·캐나다·멕시코·콜롬비아 등 아메리카 대륙 7개국, 스페인·영국·프랑스·튀르키예 등 유럽 7개국, 나이지리아·모로코 등 아프리카 3개국, 오세아니아 유일의 출전국인 호주를 포함해 5대륙에서 모두 출전해 명실상부한 지구촌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는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가 어느덧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종목이 됐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번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통해 전주는 드론축구공과 드론축구경기장, 시스템의 혁신적인 성장과 더불어 드론 레저스포츠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포스터

를 선도하는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의 수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월드컵 통해 새로운 관광스포츠산업 포문 연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국가대표전과 클럽대항전 등 드론축구 공식 경기와 장애물 레이싱을 결합한 크래싱(Gracing) 대회, 최고의 드론 조종 실력을 겨루는 슈퍼파일럿 선발대회 등 시범 종목도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대회를 찾은 관람객과 전 세계 드론축구팬들은 드론 체험존과 전주의 문화예술 공연,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가득하다.

시는 선수단 규모만 2,7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이번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토대로 드론축구의 글로벌 확산과 신시장 창출 기반 조성, 전후방 연관 산업 성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드론축구를 주도해 온 지역 드론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으로 이어져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회 기간 전주를 찾는 국내외 드론축구 선수단과 경기 관람객들이 숙박과 관광, 외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 촉진을 이끌어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시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미래형 레저 스포츠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도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 스포츠산업과 문화관광을 결합한 종합축제를 선보여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K-콘텐츠의 원형인 전주만의 독창적 매력과 기술적 성과를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26일 세계 유일의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으로 개관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의 경우 이번 드론축구월드컵에서 주경기장으로 활용되고, 교육과 체험, 전시, 제품 판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향후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은 전주가 세계 드론 스포츠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전주가 세계 속 드론 레저 스포츠의 수도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2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드론축구월드컵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개관식. 이곳은 드론축구월드컵 주경기장으로 활용된다.

탄소소재·드론·첨단ICT 산업 결합 드론축구 2016년 전주시 개발... 국내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 드론축구월드컵, 세계 드론스포츠 역사적 출발점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조직위원회 자문회의



CES 2024에서 선보인 드론축구.

▶ 우범기 시장의 포부

“명실상부한 드론 레저스포츠 수도로

“이번 전주드론축구월드컵 10년간 이어온 도전의 기록 새 도약의 첫 걸음 될 것 관광스포츠 산업 포문 여는 역사적 출발점으로 만들 것”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에서 탄생한 드론축구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함께 즐기는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로 성장해가고 있다”면서 “이제 전주는 드론축구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무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드론 레저스포츠의 수도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32개국 2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은 지난 10년간 이어온 우리 도전의 기록이자 결실이며, 앞으로 미래세대와 함께 나아갈 새 도약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 시장은 “이번 월드컵에서는 관람객들은 직접 드론을 조종하며 경험하고, 해외선수단은 전주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는 등 세계가 함께 즐기고 누리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기장을 방문한 참가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빈틈없이 관리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긴밀한 민·관 협력과 전문가 자문, 시설 점검 등 풍성하고 안전한 축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드론축구뿐만 아니라 전주의 문화와 관광, 예술, 산업 등 K-콘텐츠 원형인 전주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세계에 알리겠다”면서 “이번 월드컵을 새로운 관광스포츠 산업의 포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으로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